

2025 공군을 빛낸 인물 및 단체 시상식



‘도전’ 부문은 고공에서 역동적인 임무 현장을 담아낸 항공촬영팀이, ‘헌신’ 부문은 김해공항 민항기 화재를 신속히 진압한 김해기지 소방구조중대가 수상했다. ‘전문성’ 부문은 국방 SI 플랫폼을 개발한 지능정보체계관리단과 성인지 교육을 혁신한 박남숙 상사가 선정됐으며, ‘팀워크’ 부

공군은 1월 26일 계룡대에서 손석락 참모총장 주관으로 ‘2025년 공군을 빛낸 인물·단체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번 시상은 4대 핵심가치 실천을 통해 공군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됐다.

문은 완벽한 정비 체계를 입증한 82항공정비창이 차지했다.

손석락 총장은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정예공군 건설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 공군 예비역 정책설명회

공군은 1월 20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2026년도 예비역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역과 예비역 간의 굳건한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예비역 선배 장교들을 대상으로 2026년 공군이 추진할 주요 정책과 국방 현안을 소개함으로써 군의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예비역들은 현역 후배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는 한편,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춘 공군의 정책 방향



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변함없는 군 사랑을 확인했다.

제55기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및 임관식



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118명의 졸업생이 자랑스러운 공군 하사로 임관했다.

임관자들은 지난 3년간 항공통제, 항공전자 등 전공 학업을 마치고 6주간의 강도 높은 기초군사훈련을 견뎠다. 영예의 국방부장관상은 전영민 하사가 차지했으며, 공군전우회장상은 민찬 하사에게 수여되었다.

대한민국 영공 방위의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항공고) 제55기 졸업 및 임관식이 2월 24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거행되었다. 손석락 공

특히 이번 기수에는 삼형제가 모두 항공고 출신인 김보성 하사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임관한 구민채·김찬영 하사 등 대를 이은 공군 가족들이 탄생해 큰 화제를 모았다.

사우디를 홀린 블랙이글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지난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2026 세계 방위산업 전시회(WDS)’에서 환상적인 에어쇼를 선보이며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블랙이글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해외 에어쇼 최초로 ‘무궁화 기동’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6대의 T-50B가 그려낸 무궁화 형상은 대한민국의 끈기와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며 관람객들의 찬사를 자아냈다.

또한 사우디 공군 특수비행팀 ‘사우디 호



크스’와의 우정비행을 통해 양국 공군 간의 우애를 다졌으며, 국산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작전명 ‘사막의 빛’ 우리 국민 무사 귀환



레 없는 규모로 진행됐다. 영공 폐쇄와 민항기 결항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공군과 정부는 ‘원팀’으로 뭉쳐 10여 개국의 영공 통과 승인을 단 하루 만에 받아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국방부·합참·공군은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하며 실시간 항로 추적과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중동 위기 속 우리 국민 211명을 싣고 3월 15일 서울공항에 무사히 착륙하며 ‘사막의 빛’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작전은 사우디·레바논 등 4개국 체류 국민을 일시에 집결시켜 수송하는 전

했다. 특히 공군은 철저한 사전 계획과 정교한 임무 수행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하늘의 방패’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공군 안전우수부대 시상식

공군 제3훈련비행단, 제35비행전대, 제11전투비행단 102전투비행대대가 3월 18일 ‘안전우수부대’로 선정돼 참모총장 부대표장의 영예를 안았다.

공군은 매년 비행·지상안전관리 및 안전활동 수행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부대를 선발한다. 세 부대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투철한 안전의식으로 공군 안전 역량 발전에 기여한 3훈비 최세현 소령 등 9명에게는 참모총장 개인표창이 수여됐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안전은 기본을 지킬 때 완성된다”



며 “수상자들이 공군 안전문화 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MCRC 성능개량체계 전력화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두뇌인 제2중양방공통제소(2MCRC)가 약 3년간의 성능개량을 마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첨단 체계로 거듭났다. 공군은 2월 12일 대구기지

에서 손석락 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력화 행사를 거행하며 더욱 정밀해진 공중감시 역량을 선보였다.

이번 성능개량으로 2MCRC는 레이더 자료 처리 능력이 기존 대비 2.5배, 항적 설정 능력은 3.6배 향상되는 등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최신 탐지·요격 체계와의 연동 능력을 보강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공중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력을 확보했다. 손 총장은 “첨단화된 방공관제 역량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뒷받침할 것”을 강조하며, 전력화 행사 후 F-15K 지휘비행을 통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병영식당 민간위탁 확대

공군의 식탁이 장병 취향 맞춤형으로 진화한다. 공군은 1월 25일 1전투비행단, 공군사관학교, 1미사일방어여단 등 3개 부대를 병영식당 민간위탁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와 신선한 샐러드, 후식 등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한 ‘급식문화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높아진 장병 눈높이를 맞추고 ‘먹는 즐거움’을 통해 복무 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의지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간부식당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공군 최초로 간부식당 민간위탁을 도입



한 3훈비가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공군은 부대별 여건에 맞춰 순차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공군은 2월 3일 공군호텔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6년 공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공군 정책자문위원회는 2001년 발족 이후 언론, 학계, 정부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공군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돕는 핵심 자문 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8개 분

야(정책, 기획관리, 인사, 정보작전, 군수, 정보화, 정훈, 우주력 발전)의 자문위원 60여 명이 참석해 신규 위원 위촉식과 정책 브리핑,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공군은 향후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미 공군, 쌍매훈련 실시

한미 공군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오산기지에서 올해 첫 '쌍매훈련(Buddy Squadron)'을 전개했다.

이번 훈련은 한미 조종사들이 최신 전술을 공유하고 연합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26-1차 훈련'은 4·5세대 전투기 통합작전 수행에 중점을 두었다. 우리 공군의 F-35A, KF-16, FA-50과 미 공군의 F-16이 참가하여 현대전 교훈이 반영된 실전적 시나리오를 소화했다. 한미는 교



대로 적군(Red Team) 역할을 수행하고 연합 편조를 구성하며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8전비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1월 14일, 대한민국 중북부 영공 방위의 핵심 부대인 공군 제8 전투비행단을 찾아 현행 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임무 수행에 매진 중인 장병들을 격려

했다. 특히 우 의장은 FA-50 전투기 등을 통한 활발한 방산 수출을 언급하며, "공군은 국토방위를 넘어 K-방산이 세계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블랙이글스의 비행 훈련을 참관 후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한 우 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내 군 복지개선 소위원회를 통해 장병들의 군 생활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페이스챌린지 2026 개최

공군 대표 항공우주과학 행사인 '스페이스챌린지 2026'이 오는 4월 25일 제8전투비행단을 시작으로 5월 30일까지 전국 5개 비행단(원주, 대구, 광주, 충주, 성남)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7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 공군 항공기 및 무장 전시, VR 시뮬레이터 탑승 등 다채로

운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라이트 형제의 최초 동력비행을 기념해 '12초 이상 비행' 성공 시 상품을 증정하는 사전 신청 이벤트도 마련되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세부 프로그램 및 사전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www.spacechallenge.kr)에서 행사 3주 전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제74기 공군사관생도 졸업식

지난 2월 25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74기 공사생도 졸업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

이날 4년간의 고강도 군사훈련과 학위 교육을 완수한 176명의 신입 장교와 6명의 수탁 생도가 조국 영공 수호를 위한 힘찬 새 출발을 알렸다. 이번 74기는 '공사비전 2050'을 바탕으로 AI·사이버 등 첨단과학기술과 우주작전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했다. 영예의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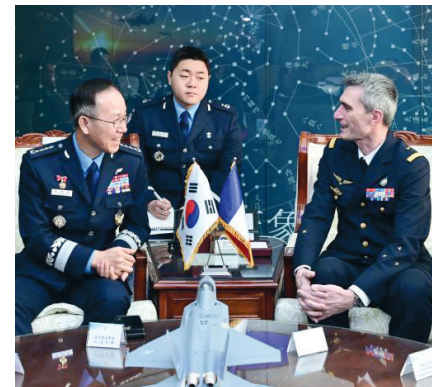


상인 김석현 소위가 안았으며, 보라매 가족으로 대를 잇는 김선혁·송유준 소위 등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프랑스 공군, 우주협력 강화

공군은 3월 11일 공군본부 우주센터에서 프랑스 항공우주군과 '우주협력을 위한 약정서(TOR)'를 체결하고, 미래 우주 안보 위협에 대한 연합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약정서를 바탕으로 연 1회 정례회의를 갖는 우주정책협의체를 신설한다. 또한 프랑스 주관 국제 우주상항조치 훈련인 '스파르테 엑스(Spartex)'에 참가해 상호운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우주 영역은 미래 전장의 핵심"이라며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국-사우디 공군, 고위급 회담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1월 27일 튀르키예 빈 반다르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디 사우디 공군사령관과 양자대담을 가졌다.

사우디 공군사령관의 방한은 17년 만으로, 양측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군사 및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사우디 대표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시뮬레이터를 탑승하며 국산 항공기의 성능을 체험하였으며,



이어서 공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부대를 찾아 우리 공군의 전투기 운용 현장과 선진 비행교육 체계를 확인하였다.

기동정찰사,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는 3월 17일 경남 남지 비상활주로에서 유사시 작전 지속지원 능력 강화를 위한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 다양한 부대가 '원팀'을 이룬 이번 훈련에는 C-130·CN-235 수송기와 공정통제사(CCT) 등 40여 명이 참가했다. 훈련은 CCT의 정밀한 활주로 평가와 신속한 통신망 구축으로 시작했다. 특히, 수송기가 멈추지 않고 기동하며 화물을 투하하는 '전투하역'을 집중 숙달해 실전성을 높였다. 화려한 전투기 작전의 이



면에서 전장의 혈맥을 잇는 수송기와 지상요원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공군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완벽한 항공작전을 지원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재확인했다.

광주지부

광주지부(지부장 손정문)는 3월 25일 공군전우회 정기총회에서 지부의 단합과 발전을 인정받아 ‘단체 보라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앞서 1월에는 103세 최고령 회원이신 정완채 전우(병 2기)께서 홀로 지부 사무소를 찾아 격려와 찬조금을 전달하시며 큰 감동을 주셨으며, 2월에는 제1전투비행단(단장 김종수) 지휘관 및 참모진과 간담회를 열어 현역과 예비역 간의 끈끈한 유대 강화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산하 모임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광주지부 골프동호회는 총회를 통해 연말식 신입 회장이 취임한 후 광주지지에서 첫 월례대회를 가졌으며, 무등보라매회



와 로카피스 광주전남지부 역시 각각 정기모임을 갖고 전우들 간의 화합과 결속을 굳건히 다졌다.

대구지부

대구지부(지부장 남상석)는 3월 27일 아현정한옥웨딩홀에서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의안 심의 및 임원 인준, 2부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안보영상 시청과 유공자 포상이 있었으며, 현역 장병(11비)과 회원 손자녀 장학금, 회원 복지지원금, (취제이원 산학 장학금 전달식이 뜻깊게 치러졌다. 남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지구촌 분쟁을 보며 안보의 중요성을 다



시 상기하자”며, “올해 전우회 발전과 지역사회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전우 간 화합을 굳건히 다졌다.

부산지부

부산지부(지부장 김진태)는 2월 24일 부산시 소재 연회장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15대 지부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새롭게 취임한 김진태 지부장은 개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인물로, 풍부한 경험과 훌륭한 인품을 두루 갖춰 참석 회원들의 만장일치 인준을 통해 신입 지부장으로 추대되었다. 김 지부장은 “그동안 지부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니



역대 회장단과 고문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그동안의 지부 활동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지부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즉각 실행에 옮기기로 전 회원과 함께 결의를 다졌다.

인천지부

인천지부(지부장 최용주)는 3월 27일 인천 연수구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 및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용주 지부장은 모범 회원으로 선정된 최일환 회원에게 공군전우회장 표창을 전수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진 친목만찬에서 최 지부장은 “최근 국제 분쟁과 북한의 도발 등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선배 전우들이 피로 지쳐낸 이



땅의 평화를 후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인천지부가 안보 위기 극복에 앞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강릉지회

강릉지회(지회장 최원규)는 1월 정기총회에 이어 3월 19일 시내 식당에서 다수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진행하였다. 최원규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릉 시민에게 봉사하는 전우회가 되자”고 다짐하며 중앙회 평생회원 가입을 적극 독려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홍규 강릉시장(병 342기)이 직접 참석해 신규 회원 가입과 함께 평생회비를 납부하



여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뜻깊게 마무리되었다.

군산지회

군산지회(지회장 최성호)는 1월 9일, 군산시 보훈회관 3층 대강당에서 30여명의 군산지회 회원들이 모여 정기총회 및 지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입 최성호 회장과 유희옥 사무총장, 강정석 부회장, 김정수 재무, 박준기 감사 등 새로운 임원진들이 새해부터 새로운 출발을 할 예정이로, 최회장은 취임사에서 ‘2026년에는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위지회

군위지회 은헌기 지회장이 2월 27일 군위향교 함덕당에서 신입 전교로 취임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공군전우회원 및 지역 유림 4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신입 전교의 취임을 축하했다. 은헌기 지회장은 “전통 유교사상의 보급과 도덕적 가치 확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행사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은 지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장, 대한노인회 효령면 분



회장 등을 역임하며 다방면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오고 있어 전우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사천지회

사천지회(지회장 박갑용)는 3월 13일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2차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년도 결산 및 2026년도 사업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됐으며, 박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천시가 ‘대한민국 우주항공 중심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기 건설에 전우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사천시 재향군인회 문정택 회장 등 임원진이 내빈으로 참석해 격려금을 전달하며 지역 안보단체 간의 끈끈한 유대를 과시했다.

수원지회

수원지회(지회장 송요정)는 1월 11일 수원시 현충탑에서 故 심정민 소령 제4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심 소령 순직 이후 수원 지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첫 추모식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추모식은 사고 발생 시각인 오후 1시 44분에 맞춰 엄숙한 묵념으로 시작되었으며, 송요정 지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민가 피해를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수원지회는 이번 추

모 행사가 매년 정례화되어 영웅의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원주지회

원주지회(지회장 신종균)는 2월 12일 약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2026년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및 결산내용과 2026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실시하였으며, 2부 만찬시간을 통해 친목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신 지회장은 “올해에도 회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다양한 봉사과 사회기여

를 통해 공군전우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천지회

화천지회(지회장 이명호)는 2월 2일 새마을금고에서 '제15·16대 지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김철준 이임 회장에게는 공군전우회장 및 화천군수 공로상 등이 수여되었으며, 이명호 신임 회장에게는 임명장과 위촉장이 전달되었다. 2026년 지회를 이끌어갈 새 임원진(부회장 이성욱, 감사 최명수, 사무국장 전용배)의 소개가 진행된 후 이어 열린 만찬 행사에는 재향군인회, 해군전우회, 대성산 공군부대장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해 새 임원진의 출발을 축하하며 끈끈한 화합을 다졌다.

LA지회

LA지회(지회장 심인태)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를 기억하는 숭고한 자리를 마련했다. 1월 23일,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 공원 묘역에서 LA지회 주관으로 열린 '애국지사 김종립 선생 순국 53주기 추모식'은 최초로 순석락 공군참모총장이 공식 추모사와 조화를 보내 그 의미를 더했다. 순총장은 추모사를 통해 “선생님의 헌신은 후손들에게 큰 자부심”이라며 “공군은 그 뜻을 받들어 조국 영공 수호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립 선생은 막대한 사재를 털어



1920년 공군의 효시인 '월로우스 비행학교' 설립을 주도한 인물로 참석자들은 선조들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필승 공군'의 결의를 다졌다.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ROKEA AIR FORCE

스페이스챌린지 2026

www.spacechallenge.kr

스페이스챌린지 in 원주 2026. 04. 25. (토)	스페이스챌린지 in 대구 2026. 05. 02. (토)	스페이스챌린지 in 광주 2026. 05. 09. (토)	스페이스챌린지 in 충주 2026. 05. 16. (토)	스페이스챌린지 in 서울 2026. 05. 30. (토)
------------------------------------	------------------------------------	------------------------------------	------------------------------------	------------------------------------